

UNKNOWN WORLD

Straight Street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구시가지 탐방기

4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고대 도시 다마스쿠스, 고풍스런 가옥과 전통 공방,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도시 곳곳에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하다. 구시가지 길을 따라 걸어 본 다마스쿠스 풍물 기행.

Cutting through Damascus, the oldest continuously inhabited city in the world, is a road that naturally offers visitors an unforgettable walk into history.





“다마스쿠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리가 실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곳은 아마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운전대를 잡자마자 현지 가이드 타이시르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아시아 한편 시리아의 수도이자 4000년 역사의 고대 도시 다마스쿠스. 이번 여행은 이 도시의 구시가지 일대를 탐험하는 것이다. 거리는 사람이 지나다니기에도 좁았지만 나는 과감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타이시르는 수년째 관광객이나 외교관을 태우고 도시 구석구석을 안내하던 베테랑이라 마음이 한결 놓였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리자 골목에 우뚝 선 옛 석조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로마 시대의 기둥이에요.” 타이시르가 내 마음을 읽은 듯 적절한 순간에 설명을 덧붙였다.

여장을 풀 곳은 구시가지 동쪽 밥 샤흐키 거리에 있는 전통 가옥 형태의 호텔. 이국적 풍취가 감도는 안뜰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다. 지배인이 환영의 의미로 민트 레모네이드를 건넸다. 낮선 곳에 들어서는 경계심이 절로 풀어지는 듯했다. 불현듯 먼 옛날 마크 트웨인이 이곳을 거닐다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다마스쿠스는 지금까지 수천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고, 또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이 짧은 표현 속에 다마스쿠스의 역사와 명성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란 그의 확신이 묻어난다.

The only way to explore the Old City of Damascus is on foot, and yet here I am in a car navigating some of the narrowest streets imaginable. My Syrian driver, Tayseer, has been ferrying tourists and diplomats through this part of town for years. “Welcome to Straight Street,” he announces with considerable pride, “the only street mentioned by name in the Bible.” As we park, I observe the broken masonry lining the curb. “Roman columns,” he explains. Tayseer is a denizen of modern high-rise Damascus but he cherishes his land’s history; as with all Syrians, only his family is more important.

My hotel is a traditional Damascene house on Sharia Bab Sharqi — the eastern part of Straight Street — and its courtyard is cool and fragrant. The ebullient manager offers me mint and lemonade; it’s an example of the disarming hospitality that defines the Syrian people. I learn how tourism is transforming this at least 4,000-year-old city for better and for worse. When Mark Twain walked Straight Street he mused that Damascus “has looked upon the dry

본격적으로 다마스쿠스를 둘러보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우선 사도 바울의 행적부터 찾아 보기로 했다. 구시가지의 동서로 뻗은 거리, 일명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 보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먼 옛날 이 거리를 거닐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뜨거운 용광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뿔가에 열중하는 대장장이와 눈이 마주쳤다. 별걸게 달아오른 낫을 손에 쥔 대장장은 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다. 구시가지에 서는 이런 장인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걷다 보니 어느덧 구시가지의 동문(東門)인 밥 샤르키에 닿았다. 이번에는 거기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느긋한 분위기의 밥

bones of a thousand empires and will see the tombs of a thousand more before she dies.”

To dive headfirst into the boisterous *souqs* of Damascus can be a daunting prospect for the visitor. Instead, I go quietly in search of Saint Paul. He also walked along Straight Street, which conveniently bisects the Old City from west to east. Along the way, I encounter a blacksmith crouching over his furnace. He's holding a red-hot sickle blade and smiles at me. "My son," he says, pointing at the young boy alongside him, who is turning out wooden utensils for



다마스쿠스 재래시장의 돔 지붕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우마이야드 모스크(왼쪽 페이지). 향신료 시장에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가게도 눈에 띈다(맨 위). 커피하우스에서 물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오른쪽 위). 구리 세공품 장인의 작업 모습(위).

(Clockwise from opposite) Like a lighthouse in the Old City, the Umayyad Mosque rises up among the domes of the *souqs*; this part of the spice souq has kept its old, decrepit shops; patrons chat and smoke hookahs at an Old City coffee shop; the coppersmith market.

women to apply kohl to their eyelashes — proof that Old City artisans have not forsaken their traditional skills.

I reach Bab Sharqi, the Old City's east gate, and turn north into the laid-back district of Bab Touma. Christian merchants on Sharia Hanania are selling marquetry boxes and furniture that is inlaid with shell and camel bone. This is where Ananias lived, who was credited in the Bible with having cured Saul of his blindness on "the street which is called Straight" (the Roman Via Recta), giving the world Saint Paul in the process.

The Last of the Storytellers Things liven up as I enter Sharia al-Qaimariyya, Straight Street's northern counterpart. Tiny bakeries, carpet sellers, workshops, falafel stalls pass by in rapid succession. At the far end is the Umayyad Mosque, and in its shadow is Al-Nawfara, the most atmospheric of traditional coffee houses. It's here most evenings that Abu Shady, the last of the professional storytellers (*hakawati*) takes to his pulpit in front of an audi-

투마 구역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마주한 하나니아 거리에선 기독교 상인들이 조개나 낙타 뼈로 세공한 가구와 함을 팔고 있었다. 이곳의 대표 명소인 하나니아 교회도 볼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니아가 장님이었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덕분에 그는 사도 바울로 거듭났다고 한다.

활기찬 시장 골목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북쪽의 알 콰이마리아 거리. 그곳에는 아담한 빵집, 양탄자 가게, 전통을 잇는 장인들의 공방, 중동식 채소 샌드위치인 팔라펠 가판대가 펼쳐져 있었다. 오밀조밀 모인 가게들을 이리저리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우마이야드 모스크에 다다랐다. 이 이슬람 사원 아래에는 고풍스런 커피숍 '알 나우파라'가 있는데, 저녁이 되면 아부 샤디라는 만담가가 한쪽 벽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현지어로 '하카와티라' 부르는 만담가들은 이제 많이 활동하지 않지만, 다마스쿠스 사람들은 축구 중계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곳에 모여 만담에 귀를 기울인다.

사원 앞에는 검은색 차도르를 길게 뒤집어쓴 시아파 여인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수니파나 다른 무슬림들과 마

다마스쿠스의 만담가 아부 샤디가 영웅 안타르와 연인 아블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아래). 시아파 순례자들이 사이다 루콰이야 모스크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맨 아래). 18세기에 지은 칸 아사드 파샤 건물(왼쪽 아래). 전통 회전 춤 공연(오른쪽 페이지).

(Clockwise from below) Abu Shady, the last popular storyteller in the country, tells the story of Antar, the Arabian hero, and the beautiful Abla; whirling dervishes; thousands of Shi'ite pilgrims come to pray at the Syyida Ruqayya Mosque; the 18th-century-built Khan As'ad Pacha.



찬가지로 세레 요한의 예배당을 구경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사원은 원래 로마 신전이 있던 자리에 지은 것이었는데, 훗날 기독교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모스크가 들어선 것이라고 한다. 사원 맞은편 끝에는 19세기풍 시장인 알 하미디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주로 생활용품을 파는 장터는 독특한 지붕으로 덮여 있다. 아치 모양의 철제 지붕에 구멍이 점점이 뚫려 있는데, 이는 1920년대 프랑스와의 교전 중에 기관총 세례를 받은 흔적이라고 한다.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바크다시'라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도 발견했다. 이 가게는 일반 밀가루보다 입자가 거친 세몰리나 밀가루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역시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

ence of Damascenes young and old. Few want to live in the Old City these days but everyone loves a good story.

I enter the mosque behind a stream of Shi'ite women in long black chadors. They've come here to worship alongside Sunnis and other Muslims, and to gaze on the shrine of John the Baptist. I remove my shoes and hurry across the scorching hot limestone to join them. That the mosque is built on the site of a Roman temple, converted later into a church, is evidence of the many hands through which Damascus passed before Syrian independence in 1946.

From the mosque, a doorway gives way onto the bus-

구경을 마치고 시장 한복판으로 돌아오자 새삼 다채롭고 감각적인 다마스쿠스 구시가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상인들과 웃고 떠들며 흥정하는 사람들부터 역사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한 가옥, 무역상들이 머무는 여관에 이르기까지. 이 구시가지가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내친김에 각종 향신료 냄새로 가득한 알 브주리야 시장에도 들렀는데, 시장 한가운데에 칸 아사드 파샤 박물관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18세기에 지은 이 건물은 흑백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석조 장식이 특징이었다. 이어서 알 카이야틴 시장으로 가 보니, 풍성한 장식과 무늬가 돋보이는 직조물과 금실, 은실로 수를 놓은 식탁보가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망치 소리에 이끌려 찾아가는 곳은 메닷 파샤 시장이었다. 이곳에서는 황동을 두들겨 쟁반을 만드는 광경이나 체크 무늬 스카프를 산더미처럼 잔뜩 쌓아 놓고 파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큰 원을 그리며 구시가지 일대를 둘러본 후 처음 그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다마스쿠스를 둘러보는 데는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클턴컨 스미스 사진 파스칼 뒤편에

ting 19th-century Souq al-Hamidiyya, where Damascenes buy their household goods. The vaulted iron roof is peppered with tiny holes made by French machine guns during fighting in the 1920s. I go only far enough to find Bakdash, a shop renowned for its delicious ice cream.

I return to the pulsating heart of the souq, finding Damascus just as the visitor wants it: colorful, sensual, exotic and although bargaining is de rigueur there is refreshingly little hassle from the traders. Historic houses (*beits*) and caravanserais (*khans*) abound, explaining why the Old City was mad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79. Finally, the sound of hammering draws me to Souq Medhat Pasha, at one end of Straight Street, where great copper trays are beaten out, and sold alongside piles of checkered scarves (*kufeyya*). It seems I've come full circle. Like all visitors to Damascus I realize that most streets lead eventually back to the one they call Straight.

📍 By Duncan J.D. Smith Photographs by Pascal Meunier



KOREAN AIR NAVIGATION



대한항공은 두바이로 주 5회, 이스탄불로 주 4회, 카이로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Dubai five times, Istanbul four times, and Cairo three times a week.

● **찾아가는 길** 카이로, 이스탄불, 두바이에서 시리아항공을 이용해 다마스쿠스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다. 입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공항은 도심에서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택시를 타고 호텔로 곧장 가는 것이 편리하다. 여행자 수표를 교환해 주는 은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추천 숙박지** 도시의 관광은 숙박 시설은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밥 사르키 거리에 있는 아게노르 부티크 호텔(www.agenorhotel.com)은 2인 조식을 포함한 하루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곳의 인물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와 물담배 시사를 즐기러 찾아오기 때문이다.

● **주변 볼거리** 구시가지 곳곳에 자리한 hammam은 800여년 동안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터키식 목욕탕이다. 그중에서 가장 웅장한 시설은 알 브주리야 시장에 있는 'hammam 누레딘'인데,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나엣 할 하타프 거리에 있는 'hammam 바크리'를 이용하면 된다. 몸을 씻을 때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왼손만 사용해야 한다. 시리아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슈크리 알 쿠와틀리 거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4월에서

● **GETTING THERE** Several major airlines fly direct to Damascus International Airport, located 30km from the city center. A non-Israel-stamped passport and valid visa are required on entry.

There are regular bus services from the airport but most visitors will find it preferable to take a taxi directly to their hotel, especially if it is located within the Old City. Be warned that few banks change travelers cheques so it's best to bring US dollars to exchange.

● **WHERE TO STAY, EAT AND DRINK** Good accommodation is not cheap in the Old City but is certainly memorable. A standard double room with breakfast in the Agenor Boutique Hotel on Sharia Bab Sharqi costs US\$225 a night (www.agenorhotel.com). The same in the Shahbandar Palace on Sharia al-Qaimariyya is US\$200 a night (www.alshahbandar-palace.com). Both are magical former Damascene town houses, as is Jabri House on Sharia as-Sawwaf, the courtyard of which is popular with both locals and tourists, who come for coffee and sheesha (www.jabrihouse.com).

For good Syrian *mezze* and chicken *shish* visit Al-Khawali on Maazanet al-Shahim, where dinner includes a performance from a troupe of whirling dervishes.

● **ACTIVITIES** For more than 800 years the hammams of the Old City have been the place to get clean. Hammam Nureddin on Souq al-Bzouriyya is one of the grandest but only open to men (9am-midnight). Between 10am and 5pm women can use Hammam Bakri on Sharia Qanayet al-Hattab. According to Islam, only the left hand should be used for washing. For the full history of Syria visit the National Museum on Sharia Shoukri al-Quwatli (Apr-Sep, Wed-Mon, 9am-6pm; Oct-Mar, Wed-Mon, 9am-4pm). Exhibits include clay tablets from ancient Ugarit, inscribed in one of the world's earliest alphabets. For living history, head 56km out of Damascus to the village of Maalula, one of the last places where Aramaic, the language of Jesus Christ, is still spoken.

자세한 문의를 ☎ **한진관광** 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 www.kaltour.com



있는데,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공항은 도심에서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택시를 타고 호텔로 곧장 가는 것이 편리하다. 여행자 수표를 교환해 주는 은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추천 숙박지 도시의 관광은 숙박 시설은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밥 사르키 거리에 있는 아게노르 부티크 호텔(www.agenorhotel.com)은 2인 조식을 포함한 하루 숙박료가 225달러(한화 약 26만원)부터다. 알 콰이마리아 거리에 있는 샤반다르 팰리스(www.alshahbandar-palace.com)는 같은 조건에 하루 200달러(약 23만원) 선이다. 둘 다 다마스쿠스 전통 가옥을 개조한 최고급 호텔이다. 아스 사와프 거리에 있는 자브리 하우스(www.jabrihouse.com)도

●주변 볼거리 구시가지 곳곳에 자리한 hammam은 800여 년 동안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터키식 목욕탕이다. 그중에서 가장 웅장한 시설은 알 브주리아 시장에 있는 'hamam 누레딘'인데,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콰나엣 알 하탐 거리에 있는 'hamam 바크리'를 이용하면 된다. 몸을 씻을 때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왼손만 사용해야 한다. 시리아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슈크리 알 쿠와틀리 거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4월에서 9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월에서 3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관하는데, 화요일은 문을 열지 않으니 일정을 잘 확인하자.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마를라 마을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아람어를 쓰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다.

Sharqi costs US\$225 a night (www.agenorhotel.com). The same in the Shahbandar Palace on Sharia al-Qaimariyya is US\$200 a night (www.alshahbandar-palace.com). Both are magical former Damascene town houses, as is Jabri House on Sharia as-Sawwaf, the courtyard of which is popular with both locals and tourists, who come for coffee and sheesha (www.jabrihouse.

4pm). Exhibits include clay tablets from ancient Ugarit, inscribed in one of the world's earliest alphabets. For living history, head 56km out of Damascus to the village of Maalula, one of the last places where Aramaic, the language of Jesus Christ, is still spoken.

자세한 문익는 [한진관광](#)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 [www.kaltour.com](#)



다마스쿠스의 공중 목욕탕
Bathhouse in Damascus